화법과 언어(문법),
개념과 유형을 익히면 국어가 쉬워집니다.

'화법과 언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화법' 분야와 '언어(문법)' 분야가 통합된 과목입니다.

자이스토리는 '화법과 언어'라는 낯설고 새로운
과목을 공부할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
개념 및 문제 유형을 철저히 분석하고,
국어 1등급을 위한 학습 비법을 수록했습니다.

화법에서는 핵심 개념을 총정리하고,
지문 분석 특강, 문제 풀이 특강을 통해
관련 기출문제들을 유형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어(문법)에서는 문법 개념을 쉽게 풀이하고,
생활과 밀착된 풍부한 예문을 담았습니다.
기출 선택지와 자료를 활용한
개념 완성 TEST를 수록하여
학습한 개념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풀이 과정을 시각화한
1등급 대비 문제 특강을 통해
고난도 문제의 해법을 빨리 찾고,
어떤 유형의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화법이 쉬워지고 문법 실력이 오르는
자이스토리로 재미있게 공부해 보세요.
문제가 술술 풀리고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쌓여
반드시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No.1 수능 문제집 자이스토리 –

내신+수능 1등급 완성 학습 계획표 [28일]

Day	페이지	틀린 문제 / 헷갈리는 문제 번호 적기	날짜	복습 날짜
1	A 01~21		월 일	월 일
2	A 22~42		월 일	월 일
3	B 01~C 13		월 일	월 일
4	D 01~16		월 일	월 일
5	D 17~32		월 일	월 일
6	E 01~F 04		월 일	월 일
7	F 05~F 20		월 일	월 일
8	G 01~12		월 일	월 일
9	H 01~09		월 일	월 일
10	I 01~J 04		월 일	월 일
11	K 01~16		월 일	월 일
12	K 17~30		월 일	월 일
13	L 01~12		월 일	월 일
14	M 01~18		월 일	월 일
15	N 01~23		월 일	월 일
16	O 01~17		월 일	월 일
17	P 01~12		월 일	월 일
18	Q 01~11		월 일	월 일
19	R 01~18		월 일	월 일
20	S 01~11		월 일	월 일
21	S 12~21		월 일	월 일
22	T 01~17		월 일	월 일
23	U 01~V 04		월 일	월 일
24	W 01~17		월 일	월 일
25	W 18~34		월 일	월 일
26	X 01~24		월 일	월 일
27	Y 01~15		월 일	월 일
28	Y 16~30		월 일	월 일

- 나는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학번이 된다.
- 磨斧作針 (마부작침)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

집필진 · 감수진 선생님들

자이스토리는 내신 + 수능 준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능, 모의평가,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개념별, 유형별, 난이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명강의로 소문난 학교·학원 선생님들께서 명쾌한 해설을 입체 첨삭으로 집필하셨습니다.

[집필진]

공보윤 화성 와우고등학교
권하라 서울 대일외국어고등학교
김효진 평택 현화고등학교
문선희 강원 신철원고등학교
문지혜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
배지은 서울 창동고등학교
이동훈 청주 단재고등학교
이세영 수원 수일고등학교
정하연 고양 대화고등학교
조연원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
최보라 과천 과천고등학교
최슬지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최용창 남양주 심석고등학교
최정현 남양주 오남고등학교

최신 5개년 기출문제 동영상 강의
자이스토리 유튜브 채널
한보람 선생님

[특별 감수진]

김민혜 성남 (분당)늘푸른고등학교
김서하 서울 영일고등학교
김선희 제주 제주제일고등학교
김성용 제주 서귀포고등학교
김형은 화성 와우고등학교
김혜경 인천 송도고등학교
김혜주 제주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김효성 천안 천안고등학교
박운재 인천 연수여자고등학교
박지윤 고양 정발고등학교
박하늘 성남 수내고등학교
서대근 안산 안산강서고등학교
신성민 서울 중앙고등학교
신진영 안산 초지고등학교
신혜민 서울 청원여자고등학교
이광은 안산 동산고등학교
이민진 대구 심동국어학원
이영철 안산 디자인문화고등학교
이옥현 광명 충현고등학교
이유나 부산 부산진여자고등학교
이정선 서울 대성고등학교
이주민 안산 강서고등학교
이현아 천안 북일고등학교
전현표 부산 제일학원
정순우 대전 우송고등학교
주효정 서울 영일고등학교
한용진 인천 송도고등학교

[감수진]

강병석 서울 옳:바른학원
강원국 광주 한수위국어전문학원
강현정 광주 청담아카데미학원
고송환 의정부 YB학원
곽동훈 서울 (송파)곽동훈국어학당
곽은애 남양주 압구정명문학원
구찬미 의정부 맨투맨학원
권유진 서울 김민경국어학원
권지원 서울 (목동)갈무리국어학원
김가은 서울 (중계)세일학원
김기은 대구 낭중지추국어논술
김난영 제주 수스터디입시학원
김남주 서울 (마포)갈무리국어학원
김미정 서울 김미정국어
김선호 서울 갈무리국어학원
김선황 창원 김선황국어논술학원
김수빈 서울 (목동)갈무리국어학원
김종덕 광주 갓국어학원
김창엽 의정부 삼광학원
김현아 부산 하이엔드국영수학원
남승희 인천 송곳에듀
류도완 부산 류도완국어논술학원
박명현 부산 지엠학원
박병용 양주 채러티크리스천아카데미
박보정 창원 혜윰국어학원
박상준 부산 필(必)통(通)국어학원
박선훈 고양 이데아국어학원
박소라 서울 (대치)국어샘학원
박유빈 세종 국어의보람학원
박정선 서울 (송파)가온누리국어학원
성혜련 안양 공즐학원
송지호 파주 (운정)크림슨교육
안혜민 부산 센텀국어(일광)
오정현 부산 가림토국어
윤상원 울산 윤원장국어전문학원
윤재식 시흥 아이비스국어학원
이래선 시흥 (배곧)이선국어학원
이수빈 서울 (목동)갈무리국어학원
이원규 울산 반석성균관학원
이주현 서울 고려학원
임지혜 거제 파스칼에듀
전고은 성남 (분당)전쌤의공부시간학원
정석영 울산 하늘연국어논술학원
조선영 화성 (동탄)올탑학원
조은숙 광주 연암학원
조효준 천안 조효준국어학원
진승언 서울 김민경국어학원2관
천혜진 시흥 이든국사과학원
최민성 서울 (중계)탑클래스학원
최연정 서울 언희당국어학원
최윤미 부천 미래인재입시학원(옥길)
한상원 서울 갈무리학원
현민주 서울 (대치)플투스학원
황우철 대전 종로학원
황지혜 서울 갈무리학원

차 례

PART I 화법

A 화법

핵심 개념 정리 12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16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20

PART II 언어

1 음운

B 국어의 음운 체계

개념 01 국어의 음운 체계 42
개념 02 국어의 모음 체계 42
개념 03 국어의 자음 체계 44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46

C 음운 변동 I – 교체

개념 04 교체 48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54

D 음운 변동 II – 탈락 · 첨가 · 축약

개념 05 탈락 58
개념 06 첨가 60
개념 07 축약 60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64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65

E 음운 지문 세트형 문제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74
동아리 소개 / 고려대 KUAAA 78

2 단어

F 단어의 구조와 짜임

개념 08 단어와 형태소 80
개념 09 단어의 짜임 83
개념 10 복합어 85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90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91
동아리 소개 / 서울대 TNT 97

G 품사 I – 체언, 용언

개념 11 품사의 분류 기준 98
개념 12 체언 98
개념 13 용언 100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104

H 품사 II –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개념 14 수식언 108
개념 15 관계언과 독립언 110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112
동아리 소개 / 이화여대 홍작 115

I 단어의 의미와 어휘

개념 16 단어의 의미와 의미 관계 116
개념 17 어휘의 체계와 종류 120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122

J 사전 활용

개념 18 사전 활용 124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126

K 단어 지문 세트형 문제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128

3 문장과 담화

L 문장 성분

개념 19 문법 단위와 문장 성분 144
개념 20 주성분 144
개념 21 부속 성분 148
개념 22 독립 성분 150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153
동아리 소개 / 포항공대 CHEERO 157

M 문장의 짜임

개념 23 홑문장과 겹문장 158
개념 24 이어진문장 158
개념 25 안은문장 160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164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165

N 문법 요소 Ⅰ – 종결 · 높임 · 시간 표현

개념 26 종결 표현 170
개념 27 높임 표현 172
개념 28 시간 표현 174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176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177

O 문법 요소 Ⅱ – 피동 · 사동 · 부정 · 인용 표현

개념 29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184
개념 30 부정 표현 186
개념 31 인용 표현 186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188

P 정확한 문장 표현

개념 32 정확한 문장 표현 194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198

Q 담화

개념 33 담화의 개념과 요소 202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204

R 문장 지문 세트형 문제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208

4 어문 규정

S 한글 맞춤법

개념 34 한글 맞춤법의 총칙 218
개념 35 소리에 관한 것 218
개념 36 형태에 관한 것 220
개념 37 띄어쓰기 224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226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227

T 표준 발음법

개념 38 표준 발음법 총칙과 모음 · 받침의 발음 234
개념 39 음의 동화, 된소리되기, 첨가 236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238

U 어문 규정 지문 세트형 문제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244

5 국어의 역사

V 훈민정음의 창제

개념 40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 250
개념 41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252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254

W 중세 · 근대 · 현대 국어의 비교

개념 42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256
개념 43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259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261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262

X 국어의 역사 지문 세트형 문제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274

PART Ⅲ 화법과 언어 복합 유형

Y 화법과 언어 복합

화법과 언어 복합 신유형 문제 288

문법 용어 + 어휘 총정리 303
문법 개념 찾아보기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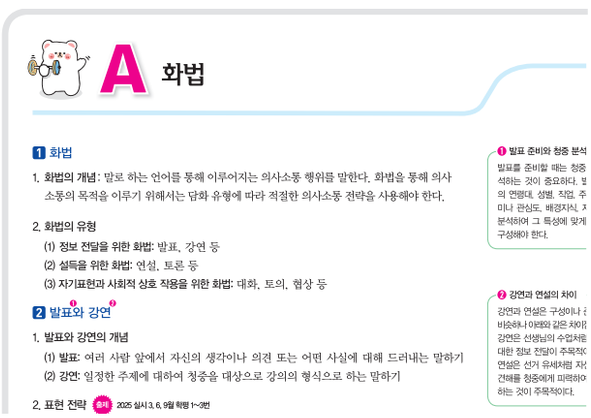
빠른 정답 찾기 320

개념별·유형별 기출문제로 내신+학평 1등급 완성

1 PART I 화법 – 화법 개념 총정리 지문 분석&문제 풀이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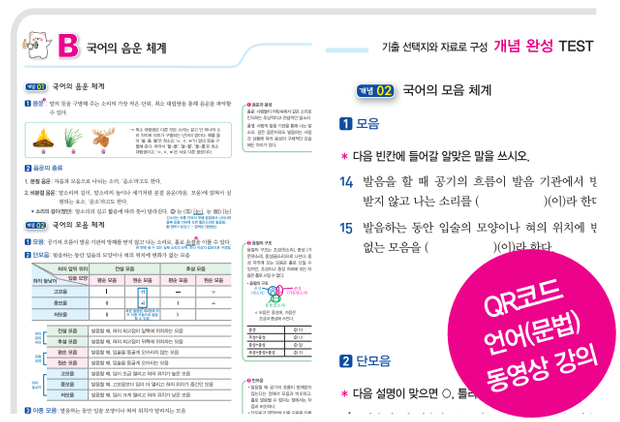
- 2022 개정 교육과정 화법과 언어 7종 교과서를 완벽 분석하여 고등 화법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 화법 영역의 독해 공식과 문제 풀이법을 특강으로 정리했습니다. 잘 기억했다가 문제 풀이에 적용하면 화법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출제 최신 고2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분석해 출제된 개념 및 유형을 밝히고 문제의 난이도를 제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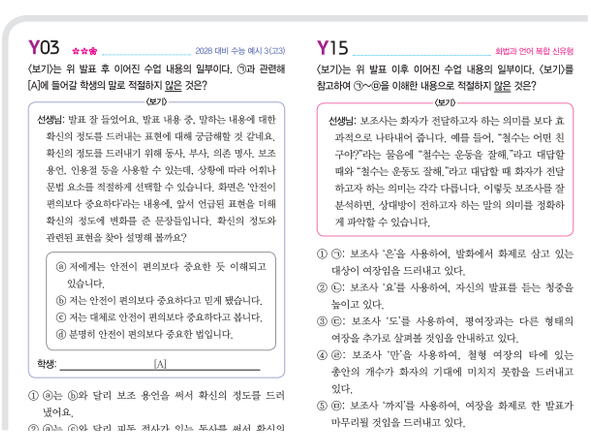
2 PART II 언어(문법) – 문법 개념 세분화·시각화 개념 완성 TEST

- 2022 개정 교육과정 화법과 언어 7종 교과서를 완벽 분석하여 고등 문법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 그림, 도표 등 시각화 자료로 문법 빈출 개념을 학습할 수 있고, 이를 개념 완성 TEST를 통해 정확히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기출 선택지와 자료로 구성된 개념 완성 TEST는 ○, × 문제, 빈칸 채우기, 선 긋기 문제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3 PART III 화법과 언어 복합 – 신유형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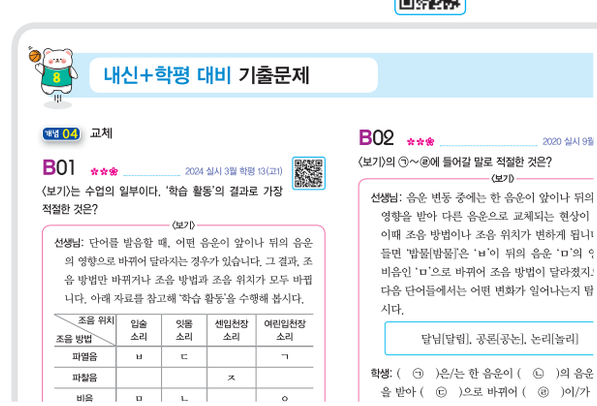
-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예시문항을 분석하여, 개정된 성취 기준에 따른 화법과 언어 복합 신유형 문제를 개발해 출제하였습니다.



4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 최신 12개년 고2 학력평가 및 수능 대비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수록했습니다.
- 최신 5개년 기출문제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 내신 시험과 학력평가, 수능 모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R코드 : 5개년 기출 동영상 강의



- 난이도: ✪ 1등급 대비 – 최상, ✿✿✿ – 상, ✿✿❀ – 중, ✿❀❀ – 하
- 출처 표시

예) 2024 실시 3월 학평 11(고2): 2024년 3월에 실시한 고2 대상 학력평가

5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 1등급을 결정하는 고난도 문제의 해결 방법을 특강으로 자세하고 쉽게 풀어서 제시합니다.

6 문법 용어 + 어휘 총정리

• 지문과 선택지 등에 제시된 어휘 중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데 기본이 되는 문법 용어와 어휘를 모두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7 입체 첨삭 해설!

문제 유형 분석
문제 유형을 제시하여 수능형 문제 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택률
선택률을 통해 매력 오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분석
문제가 의미하는 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서+발상
(단서)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는 단서를 꼭 짚어 설명합니다.
(발상) 핵심 단서와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결합니다.
(적용)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적용해야 할 내용입니다.
(해결) 단서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글의 제목
지문의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글의 제목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용 풀이
중요 내용에 해석을 달아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문 어휘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휘의 풀이를 제시했습니다.

출제
지문 내용 중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표시하여 핵심 출제 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지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 · 정리해 놓았습니다.

문단 요약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전체적인 지문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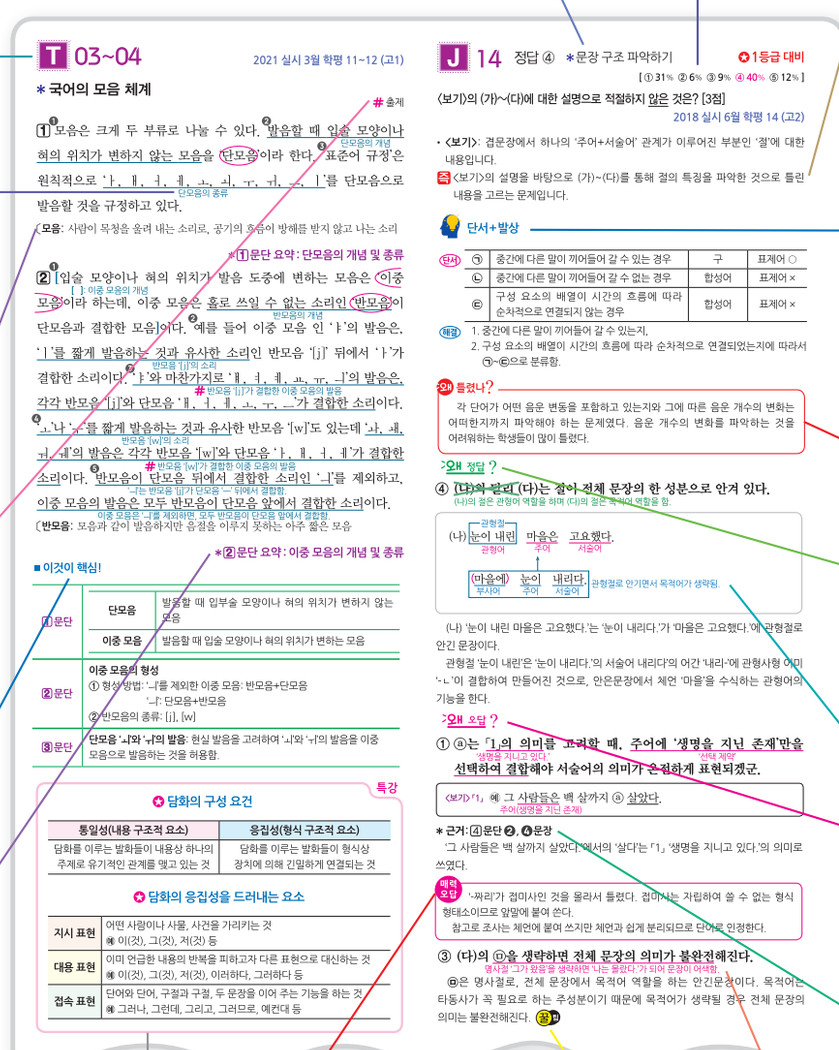
왜 틀렸나?
학생들이 많이 틀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정답?
정답이 되는 이유와 다른 오답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문제 풀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된 해설

왜 오답?
오답 풀이를 통해 틀린 문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선택지 출제 원리까지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근거가 되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특강
해당 문법 개념과 관련된 개념을 추가하여 유사 문제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매력 오답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오답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꿀팁
문제를 쉽고 빨리 풀 수 있는 특별한 도움말입니다.

선택지 첨삭 해설
선택지만으로도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꼼꼼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문항 배열 및 구성 [433제]

❶ 화법
- 고2 학력평가 최신 4개년 우수 문항 수록(27문항)
- 고3 수능 대비 모의고사 최신 3개년 우수 문항 수록(12문항)+2028 수능 예시문항(3문항)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철저히 분석하여 최신 4개년 고2 학력평가 및 3개년 고3 수능 · 모의평가에서 우수 문항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을 통해 새 수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❷ 언어(문법)
- 고2 학력평가 최신 4개년 전 문항 + 최신 12개년 우수 문항 수록(226문항)
- 고3 수능 대비 모의고사 최신 12개년 우수 문항(85문항) + 2028 수능 예시문항(4문항)
- 고1 학력평가 최신 11개년 우수 문항 수록(46문항)

• 12개년 고2 · 고1 학력평가&고3 수능 · 모의평가를 통해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을 통해 새 수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❸ 화법과 언어 복합 – 2028 수능 예시문항(3문항) + 신유형 예상문제(27문항) 수록

•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상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 예시문항과 유사하게 출제된 문항을 통해 문항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접근 전략을 익힐 수 있습니다.

[자이스토리 화법과 언어 문항 구성표 433제]

실시 연도	고2								고1	고3
	3월		6월		9월		10월		학력평가 기출문제 46문항 (2025년 고1 문법 기출문제 모두 수록)	수능 대비 기출문제 97문항
	문법	화법	문법	화법	문법	화법	문법	화법		
2025	5		5		5	3				
2024	5	3	5	3	5		5			
2023	5	3	5	3	5	3	5	3		
2022	5		5		5	3	5	3		
2021	5		5		5		5			
2020	5		5		4		5			
2019	4		5		3		5			
2018	5		5		5		5			
2017	4		5		2		4			
2016	4		3		6		4			
2015	5		5		3		3			
2014	5		7		9		6			
고2 총 문항 수	253									
2028 수능 예시	10									
신유형 예상문제	27									
총 문항 수	433									

자이스토리 화법과 언어 활용법+α

❶ 화법 관련 개념을 학습하고, 화법 독해 공식을 익혀 보세요.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철저히 분석하여 화법과 언어 7종 교과서 속 화법 핵심 개념을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지문 분석& 문제 풀이 특강에서 제시하는 화법 독해 공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며 내신과 수능을 대비해 보세요.

❷ 문법 개념을 꼼꼼하게 학습하고, 개념 완성 TEST로 확인하세요!

- 문법 개념의 풀이와 주요 예시를 관련지어 암기해 두세요. 시험 볼 때 큰 도움이 됩니다.
- 자주 출제되는 예시를 바탕으로 구성된 개념 완성 TEST로 개념을 제대로 학습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한눈에 보는 문법 개념 지도를 바탕으로 학습한 개념을 구조도나 마인드맵 형식으로 정리하세요. 머릿속에 각인되어 학습 효과가 오래 지속될 거예요.

❸ 최신 기출문제로 학교 시험과 학력평가에 대비하세요.

- 개념 완성 TEST로 개념을 이해했다면 최신 기출문제로 난도를 높여가면서 해당 개념 관련 문제를 풀어 보세요. 개념별로 최신 유형의 문제를 모두 수록한 자이스토리와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 1등급 대비 문제로 선별된 문제를 통해 어려운 문제에도 도전해 보세요. 내신과 학력평가 모두 1등급을 달성할 수 있어요.

❹ 최신 5개년 기출문제는 동영상 강의로 실력을 다져 보세요.

- 언어(문법) 영역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있어요. 최신 5개년 기출문제의 동영상 강의를 보고 각 유형의 문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파악해 보세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접했을 때 자신감 있게 풀어낼 수 있답니다.
- 최신 5개년 학력평가에 출제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필수 개념을 꼭꼭 짚어주는 동영상 강의로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모든 문법 개념에 대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어요.

❺ 입체 첨삭 해설까지 꼭 확인하고 다시는 틀리지 말자!

- 단순히 정답만 확인하는 것은 이제 그만! 해설을 통해 자신의 풀이 과정을 점검해 보세요. 틀린 문제와 찍어서 맞힌 문제는 꼭 다시 풀어 봐야 합니다.
-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문제 분석, 지문 근거, 선택지 첨삭 해설 등)도 잊지 말고 살펴보세요.

Ⅰ 화법

화법 영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 유형은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유형,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유형,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유형, 담화의 내용 파악하기 유형입니다.
각 대표 유형을 보다 빠르게 푸는 방법을 익히면, 화법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화법 대표 문제 유형 빠르게 푸는 법

1)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유형

2024 대비 수능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 용어의 개념을 정
②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
③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발표 진
안내한다.
④ 청중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질문을 하고

발표자, 강연자 등이 말하기를 하면서 사용한 방식을 묻는다.

꿀팁 '발표 도입부에서 ~', '~를 통해 발표를 마무리했다.'처럼 지문의 특정 부분을 꼭 짚어 물어보는 선택지를 먼저 푼다.

2)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유형

2024 대비 9월 모평 36

발표자의 시각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각 자료, 영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꿀팁 자료를 활용한 부분은 '(자료 제시)'처럼 괄호를 활용하여 밝혀 주니 괄호 안 표현에 집중한다. 자료를 활용한 부분을 찾았다면, 자료를 활용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에 주목한다.

3)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유형

2024 대비 수능 37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생 1: 눈꺼풀이 없는 다른 물고기들은 눈으로
빛의 양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설명
있어서 그것을 알고 싶어.

청중들이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서술한다.

꿀팁 청중의 반응과 선택지의 설명을 1:1로 대응시킨다.

4) 담화의 내용 파악하기 유형

2024 대비 9월 모평 37

위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균사가 식물 뿌리 세포의 내부까지 어떻게 들어가
② 곰팡이는 식물 이외에 다른 생물과도 상호
있나요?
③ 서로 떨어져 있는 곰팡이와 식물 뿌리가 어떻
있나요?

지문에 제시된 발표자, 강연자 등의 대답을 바탕으로 청중의 질문이 무엇인지 묻는다.

꿀팁 문제에 제시된 청중의 질문과 지문에 제시된 발표자, 강연자 등의 대답을 연결해서 읽어 본다.

A 화법

★ 화법

화법은 말로 하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를 말한다. 화법의 유형에는 발표, 강연, 연설, 토의, 토론, 협상, 대화 등이 있다.

★ 발표와 강연

발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 드러내는 말하기이다.

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청중을 대상으로 강의의 형식으로 하는 말하기이다.

★ 토의와 토론

토의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자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가 부당함을 밝히는 말하기이다.

★ 최신 3개년 고2 학력평가 출제 경향

학년도		출제 지문	난이도
2025	3월	발표 – 청산도 구들장논	✲✲
	6월	발표 – 한글과 관련된 세 가지 오해	✲✲
	9월	발표 – 조선 시대 화장 문화	✲
	10월		
2024	3월	발표 – 호화와 노화의 원리	✲✲
	6월	발표 – 홍차(이름의 유래, 홍차를 즐기는 방법 등)	✲✲
	9월	발표 – 올바른 식품 위생 관리를 통한 식중독 예방법	✲✲
	10월	발표 – 식물의 인지 행동	✲✲
2023	3월	발표 – 동양의 전통 문방구인 '먹'	✲✲
	6월	강연 – 식물에 학명(學名)을 붙이는 방법	✲✲✲
	9월	발표 – 조선 시대 양반들이 쓰던 모자인 흑립	✲✲
	11월	발표 – 조선 시대 금속 활자	✲

★ 2025년 출제 경향 분석

- **3월 학평**: 2025년도 3월 학력평가에는 국가 중요 농업 유산 1호로 지정된 청산도 구들장논을 설명하는 발표가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 **6월 학평**: 2025년도 6월 학력평가에는 한글과 관련된 세 가지 오해를 설명하고, 한글을 더 정확히 이해하며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지닐 것을 당부하는 발표가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 **9월 학평**: 2025년도 9월 학력평가에는 조선 시대 화장문화에 대해 설명하는 발표가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 **10월 학평(2024)**: 식물의 인지 행동을 설명하는 발표가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A 화법

1 화법

1. **화법의 개념**: 말로 하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를 말한다. 화법을 통해 의사소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담화 유형에 따라 적절한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2. 화법의 유형
   (1)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 발표, 강연 등
   (2) **설득을 위한 화법:** 연설, 토론 등
   (3)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화법:** 대화, 토의, 협상 등

2 발표[1]와 강연[2]

1. 발표와 강연의 개념
   (1) **발표:**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 드러내는 말하기
   (2) **강연:**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청중을 대상으로 강의의 형식으로 하는 말하기

2. 표현 전략 출제 2025 실시 3, 6, 9월 학평 1~3번

(1) 언어적 표현 전략	• **언어적 표현**: 어휘, 문장 등과 같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며 의미 작용을 하는 요소들 • 발표(강연)를 할 때는 쉽고 정확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청중의 지식수준, 관심 영역에 따라 적절한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 •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간결한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 • 내용 연결 표현[3], 비유, 질문 등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2) 비언어적 표현 전략	• **비언어적 표현**: 언어적·준언어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몸동작, 시선, 표정, 옷차림 등이 있다. • 적절한 몸동작, 시선, 표정 등을 활용해 감정이나 의도, 태도를 표현하고 언어적 표현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3) 준언어적 표현 전략	• **준언어적 표현**: 언어적 표현과 결합해 의미를 전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목소리의 크기, 말의 속도, 억양, 어조 등이 있다. • 목소리의 크기, 말의 속도, 억양, 어조 등에 적절한 변화를 주면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고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3. 발표의 구성

(1) 도입부	• 발표자(강연자)를 소개하고, 질문이나 경험담으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한다. • 발표(강연) 주제, 목적, 배경 등을 설명한다.
⬇	
(2) 전개부	• 주제 혹은 목적에 맞게 내용을 발표한다. • 다양한 자료와 매체를 활용하여 내용 전달 효과를 높인다.
⬇	
(3) 정리부	• 앞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 당부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언급한다.

4. 청중이 지녀야 할 태도
   – 발표 혹은 강연의 목적이나 의도 등을 생각하며 적절히 반응한다.
   –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듣는다. (기준: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 의문점은 발표 혹은 강연 후 질문을 통해 해결한다.

1 발표 준비와 청중 분석
발표를 준비할 때는 청중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표자는 청중의 연령대, 성별, 직업, 주제에 대한 흥미나 관심도, 배경지식, 지식수준 등을 분석하여 그 특성에 맞게 발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2 강연과 연설의 차이
강연과 연설은 구성이나 준비 절차등이 비슷하나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강연은 선생님의 수업처럼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 전달이 주목적이다.
연설은 선거 유세처럼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청중에게 피력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3 내용 연결 표현
내용 연결 표현은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거나, 내용을 전환하는 등의 표현을 말한다. 적절한 내용 연결 표현은 청중이 발표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 • 지금까지 한옥의 기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내용 요약)
• 다음으로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용 전환)
• 기와에는 대표적으로 암키와와 수키와, 암막새와 수막새가 있습니다. (내용 분류)

〈발표〉 [2025 실시 9월 학평 1~3(고2)]

[A01 ~ 0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화장의 역사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조선 시대 여성들이 내면과 외면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위해 자연스러운 화장을 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 시대 화장 문화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분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대답을 듣고) 모르시는 분이 많네요. 분대는 화장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분을 바른 얼굴과 먹으로 그린 눈썹이라는 뜻으로 당시에 피부 화장과 눈썹 화장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피부 화장은 기초화장과 색조 화장으로 나뉘는데 기초화장 단계에서는 피부 보습과 미백을 위해 미안수와 면약을 사용했습니다. 미안수는 지금의 로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세미나 오이의 즙으로 만들었고, 면약은 크림 역할을 하는 것으로 꿀과 복숭아꽃 등을 섞어 만들었습니다. (㉠ 자료 제시) 보시는 것은 미안수와 면약을 담았던 용기인데요, 액체류인 미안수와 달리 면약은 점성이 있고 흐르지 않아 입구가 넓고 깊이가 얕은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면약 용기에 문양이 보이시죠? (대답을 듣고) 네, 바로 꽃문양인데요, 용기에 꾸밈새를 더하기 위해 화훼 문양을 그려 넣기도 했는데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을 주로 그렸습니다.

기초화장을 마친 후에는 백분으로 색조 화장을 했는데, 쌀과 잡곡 가루를 섞어서 만든 백분은 주원료가 곡식이었기 때문에 접착력이 떨어졌습니다. (㉡ 자료 제시) 이 도구들은 백분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분접시에 백분을 덜어 물에 갠 후, 솜을 동그랗게 뭉친 분첩으로 두드려 발랐는데요, 분첩이 없을 때는 물에 갠 백분을 손으로 바르고 낮잠을 자면 수면 중에 피지가 분비되어 잘 스며들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날에는 백분 화장을 하기 전에 얼굴을 더 희게 하기 위해 백분을 물에 개어 발랐다가 씻어 내는 분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피부 화장만큼 중요한 단계는 눈썹 화장인데 여성 생활 지침서였던 『규합총서』에 '십미요'라고 부르는 열 가지 눈썹 모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자료 제시) 그중에서도 그림 속 눈썹처럼 가늘고 동그랗게 휘어진 형태를 가장 선호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를 위해 눈썹 털을 족집게로 정리하고 나뭇가지나 꽃잎을 태운 재로 만든 미묵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시대의 피부 화장과 눈썹 화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발표를 듣고 나니 백옥 같은 피부에 초승달 같은 눈썹 모양을 한 당대 여성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청중을 둘러보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A01 ✿❀❀ 2025 실시 9월 학평 1(고2)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발표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여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②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③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하며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④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⑤ 청중이 발표를 듣고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A02 ✿❀❀ 2025 실시 9월 학평 2(고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장품의 제형에 따라 용기 형태가 달랐음을 보여 주기 위해 [자료 1]을 ㉠에 제시하였다.
② 화장품 용기에 화훼 문양을 그려 넣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자료 1]을 ㉠에 제시하였다.
③ 백분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 2]를 ㉡에 제시하였다.
④ 사용 목적에 따라 백분의 제조 과정이 달랐음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 2]를 ㉡에 제시하였다.
⑤ 십미요 가운데 가장 선호했던 눈썹의 모양을 보여 주기 위해 [자료 3]을 ㉢에 제시하였다.

A03 ✿❀❀ 2025 실시 9월 학평 3(고2)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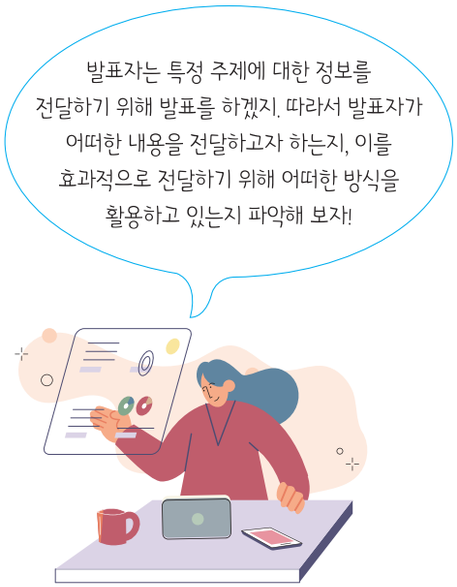
학생 1: 조선 시대에 백분으로 하는 색조 화장 이외에 다른 색조 화장은 없었을까? 신부가 혼례를 올릴 때 볼과 입술을 붉은색으로 화장을 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

학생 2: 그래? 붉은색으로 색조 화장을 하면 혼례식에서 신부의 얼굴이 더 돋보였겠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 눈썹 화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지?

학생 1: 응, 맞아. 그런데 나는 십미요에 해당하는 다른 눈썹 모양들이 궁금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어.

학생 2: 나도 그랬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십미요에 해당하는 다른 눈썹 모양을 찾아봐야겠어.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을 듣고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상대에게 확인하고 있다.
③ '학생 1'은 '학생 2'와 달리 발표에서 제공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④ '학생 2'는 '학생 1'과 달리 발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계획하고 있다.
⑤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궁금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 정답 및 해설 3~4p

지문 분석 특강 <빈칸을 채우시오.>

화법 지문 독해 공식

❶ **중심 화제 찾기**
중심 화제는 지문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재이다.

❷ **중심 내용 찾기**
중심 내용은 지문의 각 문단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❸ **발화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발화자의 말하기 방식은 발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방식이다.

1st 먼저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내용을 체크한다.

A01 발표자가 발표를 진행하면서 활용한 말하기 방식을 묻고 있다.

A02 발표자가 제시한 시각 자료를 보고, 이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 것을 묻고 있다.

A03 발표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나타난 <보기>를 적절하게 이해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다.

2nd 독해 공식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

1 요약: 발표 화제로 '조선 시대 화장 문화'를 제시함.

발표자는 발표를 시작하면서 며칠 전에 읽은 화장의 역사에 관한 책을 언급하며 발표 화제로 삼은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의 ❶ **조선 시대 화장 문화**에 대해 발표할 것을 밝히고, ❸ **청중에게 질문을 하고 반응을 확인하며** ❷ (1)_____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❷ **분대: 분을 바른 얼굴과 먹으로 그린 눈썹**

➡ A01 ①의 근거

2 요약: 조선 시대의 기초화장 문화

발표자는 피부 화장을 ❷ (2)_____와/과 색조 화장으로 나누었다. 먼저 기초화장의 단계에서는 피부 보습과 미백을 위해 ❷ **미안수와 면약**을 썼다고 했다. 그리고 ❸ **청중에게 질문을 하고 반응을 확인하며** ❷ **면약 용기에 그려진 모란 무늬가** (3)_____**을/를 상징함**을 말하고 있다.

❷ **미안수: 액체류로 지금의 로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세미나 오이의 즙으로 만듦.**

❷ **면약: 점성이 있어 흐르지 않고 지금의 크림 역할을 하는 것으로 꿀과 복숭아꽃 등을 섞어 만듦.**

➡ A01 ① / A02 ①, ②의 근거

3 요약: 조선 시대의 색조 화장 문화

발표자는 조선 시대 여성들은 기초화장을 마친 후 백분으로 ❷ **색조 화장을 했는데,** ❷(4)_____**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분접시와 분첩을 사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 특별한 날에는 분세수를 했음을 말하고 있다.

❷ **분세수: 백분 화장을 하기 전에 얼굴을 더 희게 하기 위해 백분을 물에 개어 발랐다가 씻어 내는 것**

그리고 『규합총서』에 나온 '십미요'에 대해 소개하며, 그중 가늘고 동그랗게 휘어진 눈썹 형태를 가장 선호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눈썹 형태를 만들기 위해 눈썹 털을 (5)_____(으)로 정리하고 나뭇가지나 꽃잎을 태운 재로 만든 ❷ **미묵**으로 선을 그렸다고 말하고 있다.

❷ **십미요: 열 가지 눈썹 모양**

➡ A02 ③, ④, ⑤ / A03 ①~⑤의 근거

4 요약: 발표 마무리

발표자는 지금까지 ❶ **조선 시대의 피부 화장과** (6)_____**화장**에 대해 알아보았다며 발표를 정리하며, 백옥 같은 피부에 초승달 같은 눈썹 모양을 한 조선 시대 여성들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❸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3rd 지문의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지문의 주제를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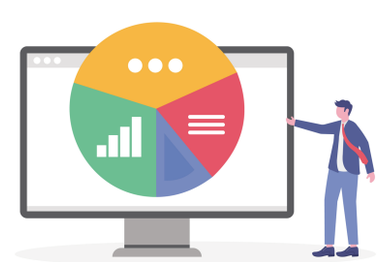
1 에서는 발표 전체의 중심 화제인 '조선 시대 화장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분대의 의미를 제시했다.

2 에서는 조선 시대의 기초화장 문화인 미안수와 면약에 대해 소개하며, 용기에 그려진 모란이 부귀를 나타냄을 밝혔다.

3 에서는 조선 시대의 색조 화장 문화인 백분 화장과, 눈썹을 그리기 위해 사용된 족집게와 미묵을 소개했다.

4 에서는 발표의 전체 화제를 다시 제시하며 조선 시대의 여성의 모습을 상상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따라서 이 지문의 **주제**는 '기초화장과 색조 화장으로 살펴본 조선 시대의 (7)_____'(이)다.



❖ 정답 다음 페이지에

문제 풀이 특강

A01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선택지에 제시된 말하기 방식(=발표 전략)이 사용된 부분 찾기

[① 94% ② 3% ③ 1% ④ 1% ⑤ 1%]

	선택지 내용	(○, ×)
①	관련 질문, 청중의 반응 확인	○
②	발표 순서 안내	×
③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	×
④	청중의 요청, 추가 정보 제공	×
⑤	발표 효용 제시, 발표 마무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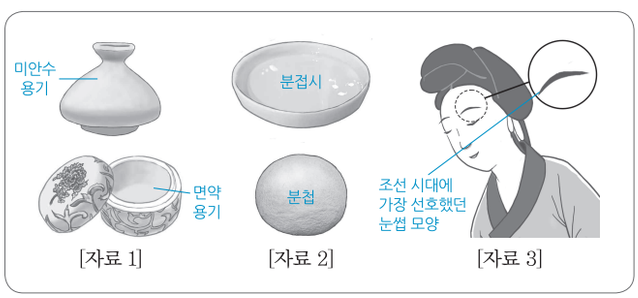
발표에서 사용한 말하기 방식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선택지에 제시된 말하기 방식이 사용된 부분을 발표에서 찾아본다.

1 **문단**의 '여러분은 혹시 분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대답을 듣고) 모르시는 분이 많네요.'에서 관련 질문과 청중의 반응 확인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2 **문단**의 '면약 용기에 문양이 보이시죠? (대답을 듣고) 네, 바로 꽃문양인데요'에서 관련 질문과 청중의 반응 확인이 드러나 있다.

A02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제시된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 파악하기

[① 2% ② 3% ③ 2% ④ 90% ⑤ 3%]



	선택지의 키워드	자료	자료를 제시한 부분
①	화장품의 제형에 따라 용기 형태가 달랐음	[자료 1]	2 문단의 ㉠
②	화장품 용기에 화훼 문양을 그려 넣은 이유	[자료 1]	2 문단의 ㉠
③	백분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설명	[자료 2]	3 문단의 ㉡
④	사용 목적에 따라 백분의 제조 과정이 달랐음	[자료 1]	3 문단의 ㉡
⑤	십미요 가운데 가장 선호했던 눈썹의 모양	[자료 3]	3 문단의 ㉢

① 2 **문단**을 보면 점성이 있는 면약의 용기는 입구가 넓고 깊이가 얕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료 1]을 ㉠에 적절히 활용하였다.

② 2 **문단**을 보면 용기에 꾸밈새를 더하기 위해 문양을 그려 넣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료 1]을 ㉠에 적절히 활용하였다.

③ 3 **문단**을 보면 백분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물에 갠 후 분첩으로 두드려 바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료 2]를 ㉡에 적절히 활용하였다.

④ 사용 목적에 따라 백분의 제조 과정이 달랐음은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료 2]를 ㉡에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3 **문단**을 보면 십미요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눈썹은 가늘고 동그랗게 휘어진 형태라고 했는데, [자료 3]을 ㉢에 적절히 활용하였다.

A03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지문과 <보기>를 연관 지어 반응에 대해 적절히 파악하기

[① 1% ② 3% ③ 87% ④ 6% ⑤ 3%]

〈 보기 〉

❶ **학생 1**: 조선 시대에 백분으로 하는 색조 화장 이외에 다른 색조 화장은 없었을까? 신부가 혼례를 올릴 때 볼과 입술을 붉은색으로 화장을 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
(추가적인 궁금증) (배경지식을 떠올림.)

❷ **학생 2**: 그래? 붉은색으로 색조 화장을 하면 혼례식에서 신부의 얼굴이 더 돋보였겠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 눈썹 화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지?
(발표에서 제공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함.) (발표 내용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함.)

❸ **학생 1**: 응, 맞아. 그런데 나는 십미요에 해당하는 다른 눈썹 모양들이 궁금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어.
(발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쉬워함.)

❹ **학생 2**: 나도 그랬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십미요에 해당하는 다른 눈썹 모양을 찾아봐야겠어.
(발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쉬워함.) (추가 탐색을 계획함.)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듣고 학생들이 반응한 <보기>에 대해 적절히 이해했는지 지문과 비교하여 확인해 본다.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을 듣고 조선 시대 신부가 혼례를 올릴 때 사용하는 화장에 대해 인터넷에서 본 내용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2'는 '조선 시대에 눈썹 화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지?'라며 발표 내용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상대에게 묻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1'이 아니라 '학생 2'가 '붉은색으로 색조 화장을 하면 혼례식에서 신부의 얼굴이 더 돋보였겠다.'라고 하며 발표에서 제공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학생 2'가 '학생 1'과 달리 '십미요에 해당하는 다른 눈썹 모양을 찾아봐야겠어.'라며 발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학생 1'은 '나는 십미요에 해당하는 다른 눈썹 모양들이 궁금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어.'라며, '학생 2'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며 발표에서 궁금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아쉬워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지문 분석 특강 빈칸 정답 (1) 분대 (2) 기초화장 (3) 부귀 (4) 백분 (5) 족집게 (6) 눈썹 (7) 화장 문화

〈1 발표〉

[A04~06]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아이스티와 밀크티.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대답을 듣고) 네, 차(茶) 맞습니다. 정확히는 홍차를 주재료로 한 차입니다. 자주 접하지만 제대로 몰랐던 홍차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리기 위해, '홍차, 알고 마셔 보자!'를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차는 차나무에서 딴 잎을 가공하여 만든 음료를 말합니다. 흔히들 녹차 나무, 홍차 나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는 카멜리아 시넨시스라 불리는 차나무의 잎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녹차, 홍차 등으로 구분됩니다. 잎을 산화시키지 않는 녹차와 달리 홍차는 가공 과정에서 잎을 충분히 산화시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녹색의 찻잎이 암갈색으로 변하면서 고유의 맛, 향, 색을 가진 홍차가 됩니다. 충분히 산화된 찻잎을 우려내면 붉은빛의 찻물이 만들어지는데, 홍차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홍차를 즐기는 기본적인 방법은 찻잎을 직접 우려 마시는 것입니다. 찻잎을 우릴 때 홍차의 맛과 향을 좌우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며) 찻주전자에 100℃까지 끓인 물을 세차게 붓자, 찻잎이 위로 떠올랐다가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찻잎의 움직임을 '점핑'이라고 합니다. 점핑은 물의 낙차를 이용해 찻잎이 대류 운동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인데, 점핑이 잘 되면 찻잎의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게 됩니다.

홍차는 조리법이나 첨가물을 달리하여 취향에 맞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차갑게 우려내는 아이스티, 설탕과 우유를 넣어 부드러운 맛을 내는 밀크티가 대표적입니다. 또 꽃잎이나 과일 조각, 향신료 등을 더하기도 하는데, 그중 감귤류의 향을 입힌 얼그레이가 인기가 높습니다.

홍차에는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산화 과정에서 생성된 테아플라빈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홍차를 마시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이는 바로 테아닌 성분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매력 많은 홍차, 이제부터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홍차 한 잔 어떠신지요.

A04 ✿✿❀

2024 실시 6월 학평 1(고2)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발표 순서를 먼저 알려주고 이에 따라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② 발표 중간중간 청중에게 질문하며 발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③ 관련된 일화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있다.
④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환기하여 주제 선정의 동기를 제시하고 있다.
⑤ 다른 대상과의 차이점을 드러내어 중심 화제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A05 ✿❀❀

2024 실시 6월 학평 2(고2)

다음은 발표자가 발표를 계획하며 메모한 것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ㅇ 발표 내용에 흥미를 갖도록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해야겠어. 도입부에서 학생들이 알 만한 음료를 제시해서 홍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도록 해야지. …… ㉠
- ㅇ 학생들은 차에 대한 배경지식이 적을 것 같아. 차의 개념과 차를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줘야지. …… ㉡
- ㅇ 찻잎을 우릴 때의 포인트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동영상을 활용해서 찻잎의 점핑을 설명해야지. …… ㉢
- ㅇ 홍차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 취향에 맞게 첨가물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 ㉣
- ㅇ 발표 주제와 관련해 발표를 마무리해야겠어. 홍차의 효능을 알리고 홍차를 마시자고 제안해야지. …… ㉤

① ㉠ ② ㉡ ③ ㉢ ④ ㉣ ⑤ ㉤

A06 ✿✿❀ 2024 실시 6월 학평 3(고2)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청중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청중 1: 밀크티가 홍차를 주재료로 한다는 걸 알게 되어 좋았어. 발표를 들으니 홍차 고유의 맛과 향이 궁금해져서 발표자가 알려준 대로 홍차를 우려서 마셔 보려 해.

청중 2: 홍차 이름이 찻물의 색 때문이라는 점이 흥미로웠어. 그런데 서양에선 홍차를 블랙티라 부르던데. 찻잎이 산화되면서 암갈색으로 변한다고 했으니, 이것 때문이 아닐까?

청중 3: 홍차에 면역력 증진, 집중력 향상의 효능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유익했어. 차에는 카페인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알려주지 않아 아쉬웠어.

① 청중 1은 발표를 통해 얻은 정보를 직접 이용해 보려 하는군.
② 청중 2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론하고 있군.
③ 청중 3은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군.
④ 청중 1과 청중 3은 새롭게 알게 된 정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⑤ 청중 2와 청중 3은 발표자가 다루지 않은 내용을 지적하며 아쉬워하고 있군.

[A07~09]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일상 속 과학 원리에 대해 발표하게 된 ○○○입니다. 며칠 전 본 영화에서 주인공이 라면 국물에는 역시 갓 지은 밥보다 찬밥을 말아 먹어야 더 맛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호화와 노화의 원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밥이 지어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쌀의 약 70%는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전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그것부터 설명해야겠군요. 전분은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쌀, 밀 등의 식물에 있습니다. (그림 1을 보여 주며) 이것은 생쌀의 전분 입자인데,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 분자가 밀집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1에서 입자의 일부를 확대한 부분을 가리키며) 여기를 보시면 용수철처럼 생긴 아밀로오스와 갈퀴처럼 생긴 아밀로펙틴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쌀과 물을 함께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 2를 보여 주며) 밀집된 분자들 사이로 수분이 침투합니다. 이로 인해 분자 사이의 간격이 커지고 분자의 모양도 흐트러져 그림처럼 전분 입자의 모양과 구조가 변합니다. (그림 1과 그림 2를 나란히 보여 주며) 이렇게 전분이 왼쪽 그림의 상태에서 오른쪽 그림의 상태로 변하는 과정을 호화라고 합니다. 호화된 쌀은 부드럽고 촉촉해서 사람들은 보통 갓 지은 밥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갓 지은 밥을 오래 두면 식으면서 밥알이 굳습니다. 이는 전분의 노화 때문입니다. (그림 3을 보여 주며) 노화는 호화된 전분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와 같이 일부 탄수화물 분자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분자 사이의 간격도 좁아지는 과정입니다. 노화는 온도가 0도에서 60도 사이이거나 전분의 수분 함량이 30%에서 60% 사이일 때 잘 일어납니다. 전분이 노화되면 밥이 딱딱해지고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도나 수분 함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라면 국물에는 찬밥이 더 어울리는 이유로 돌아가 볼까요? 찬밥의 노화된 전분은 국물을 흡수하면서 수분을 회복해 호화된 전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밥에 간도 잘 배어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갓 지은 밥의 경우는 어떨지 그 전분 구조를 노화된 전분과 비교해 살펴볼까요? (그림 2와 그림 3을 나란히 보여 주며) 왼쪽 그림의 호화된 전분에는 오른쪽 그림의 노화된 전분에 비해 수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분의 수분이 국물로 이동하는 삼투압 현상이 발생해 간이 싱거워져 찬밥을 만 경우에 비해 맛이 떨어집니다.

정리하자면 라면 국물에 찬밥이 어울리는 이유는 (그림 1, 2, 3을 차례로 보여 주며) 온도와 수분의 변화에 따라 전분의 상태가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도 이러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 궁금증을 지나치지 않으면 신기한 과학의 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 정답 및 해설 4~6p

Ⅱ 언어(문법)

언어(문법) 영역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은 문법 용어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보기〉나 지문에 제시한 후, 선택지에서 이를 적용한 사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유형입니다.

언어(문법) 대표 문제 유형

1 〈보기〉를 바탕으로 개념 파악하기

F07 1등급 대비 2025 실시 3월 학평 14(고2)

〈보기〉의 [A]~[C]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선생님: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합니다. [자료]의 파생어를 분류해 봅시다.

[자료]

ㄱ. 겁쟁이 ㄴ. 날고기 ㄷ. 넓히다
ㄹ. 맡기다 ㅁ. 지우개 ㅂ. 풋사랑

접사가 어근 뒤에 결합하는가? → 아니요 [A]
↓ 예
파생어의 품사가 어근의 품사와 동일한가? → 아니요 [B]
↓ 예
[C]

유형 포인트

① 〈보기〉의 개념 설명을 토대로 선택지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유형이에요.
'어근', '접사'처럼 〈보기〉에서 설명하지 않는 개념이 나올 수 있으니, 〈보기〉를 읽지 않고도 개념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문법 개념을 충분히 학습해 두어야만 해요.

② 어려운 〈보기〉 문항 같은 경우, [자료]에 제시된 단어를 〈보기〉에 등장하는 질문에 따라 분류하기를 요구하기도 해요.
〈보기〉 속 질문을 꼼꼼히 읽고, 각 질문에 맞는 답에 따라 [자료] 속 단어를 분류해야 해요.

유형 해결 비법

1st 파생어를 이루는 어근과 접사 개념, 접두 파생어, 접미 파생어 개념을 사전에 숙지해야만 해요. 또한 〈보기〉의 '날-'처럼 어근에 일정한 의미만을 더할 뿐 품사를 바꾸지 않는 접사, 그리고 '-개'처럼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를 알아 두어야 해요.

2nd 〈보기〉 속 질문을 잘 읽고, [자료] 속 단어가 접두 파생어인지 접미 파생어인지,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같은지 아닌지를 파악해요.

2 지문을 통해 개념 파악하기

[S59~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운은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 데 사용되는 소리로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음운으로서 'ㅅ'과 'ㅆ'을 구분하지만 영어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음운이 실제로 발음되기 위해서는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을 이뤄야 하는데 음절의 구조도 언어마다 다르다. 국어는 한 음절 내에서 모음 앞이나 뒤에 각각 최대 하나의 자음을 둘 수 있지만 영어는 'spring[sprin]'처럼 한 음절 내에서 자음군이 형성될 수 있다.

음운은 그 자체로는 뜻이 없다. 음운이 하나 이상 모여 뜻을 가지면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형태소를 결합하여 단어를 만들고 말을 한다. 이때 ㉠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음운이 다양하게 배열되고 발음이 결정되는데, 여기에 음운 규칙이 관여한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국물[궁물]'처럼 '파열음-비음' 순의 음운 배열이 만들어지면, 파열음은 동일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교체된다. 그런데 이런 음운 규칙도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영어에서는 'nickname[nikneim]'처럼 '파열음(k)-비음(n)'이 배열되어도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S60 ★★★ 2023 대비 6월 모평 36

㉠의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앞일[암닐] ⓑ 장미꽃[장미꼳] ⓒ 넣고[너코]
ⓓ 걱정[걱쩡] ⓔ 굳이[구지]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유형 포인트

① 단순히 어떠한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②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조건을 이해하고 그 조건을 바탕으로 음운 변동의 양상을 구분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유형 해결 비법

1st 〈보기〉 속 단어의 형태소를 분석해요.

2nd 그 형태소 경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는 문법 개념 지도

Ⅰ 음운

- 개념 01 **음운 체계**
  - 분절 음운
    - 개념 02 모음
    - 개념 03 자음
  - 비분절 음운 — 소리의 길이
- **음운 변동**
  - 개념 04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반모음화
  - 개념 05 탈락 — 자음군 단순화, 'ㄹ' 탈락, 'ㅎ' 탈락, 'ㅡ' 탈락, 동일 모음 탈락
  - 개념 06 첨가 — 'ㄴ' 첨가, 반모음 첨가
  - 개념 07 축약 — 거센소리되기, 모음 축약

Ⅱ 단어

- 개념 08 **형태소**
  -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 개념 09 **어근과 접사**
- **단어**
  - 단일어
  - 복합어
    - 합성어 개념 10
    - 파생어 개념 10
- 개념 11 **품사**
  - 개념 12 체언 — 명사, 대명사, 수사
  - 개념 13 용언 — 동사, 형용사
  - 개념 14 수식언 — 관형사, 부사
  - 개념 15 관계언 — 조사
  - 개념 15 독립언 — 감탄사
- 개념 16 **단어의 의미와 의미 관계**
  - 동음이의어, 다의어
  -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 부분 - 전체 관계
- 개념 17 **어휘의 체계와 종류**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 지역 방언, 사회 방언
- 개념 18 **사전 활용**

Ⅲ 문장과 담화

- 개념 19 **문장의 구성 단위** — 어절, 구, 절
- **문장 성분**
  - 개념 20 주성분 —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 개념 21 부속 성분 — 관형어, 부사어
  - 개념 22 독립 성분 — 독립어
- **문장의 짜임**
  - 개념 23 홑문장
  - 개념 23 겹문장
    - 개념 24 이어진 문장
      -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
      -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
    - 개념 25 안은 문장
      -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
      -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
      -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
- **문법 요소**
  - 개념 26 종결 표현 —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 개념 27 높임 표현 —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 개념 28 시간 표현
    - **시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 **동작상**: 진행상, 완료상
  - 개념 29 피동 표현 — 파생적 피동문, 통사적 피동문
  - 개념 29 사동 표현 — 파생적 사동문, 통사적 사동문
  - 개념 30 부정 표현 — '안' 부정문, '못' 부정문 / 짧은 부정, 긴 부정
  - 개념 31 인용 표현 — 직접 인용, 간접 인용
- 개념 32 **정확한 문장 표현**
- 개념 33 **담화의 개념과 요소**
  - 구성 요소 — 담화의 맥락 (언어적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 요건 — 통일성, 응집성
  - 표현 요소 —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

Ⅳ 어문 규정

- **한글 맞춤법**
  - 개념 34 한글 맞춤법의 총칙
  - 개념 35 소리에 관한 것
  - 개념 36 형태에 관한 것
  - 개념 37 띄어쓰기
- **표준어 규정**
  - 개념 38 표준 발음법 총칙과 모음 · 받침의 발음
  - 개념 39 음의 동화, 된소리되기, 첨가

Ⅴ 국어의 역사

- **고대 국어**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 개념 40
- **중세 국어**
  -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개념 41
  -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개념 42
- **근대 국어** —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개념 43

1 음운

B 국어의 음운 체계
C 음운 변동 Ⅰ – 교체
D 음운 변동 Ⅱ – 탈락 · 첨가 · 축약
E 음운 지문 세트형 문제

★ 개념 차례

B 국어의 음운 체계

개념 01 국어의 음운 체계
개념 02 국어의 모음 체계
개념 03 국어의 자음 체계

C 음운 변동 Ⅰ –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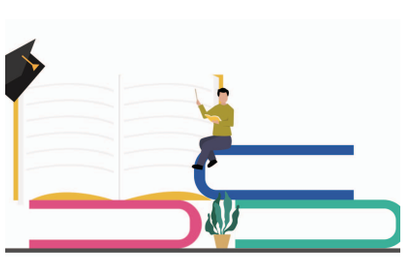
개념 04 교체

D 음운 변동 Ⅱ – 탈락 · 첨가 · 축약

개념 05 탈락
개념 06 첨가
개념 07 축약

E 음운 지문 세트형 문제

문법 지식을 설명하는 지문을 읽고, 이와 관련된 두 문항을 푸는 유형이다. 주로 한 문항은 지문에서 설명한 문법 개념을 실제 예문에서 확인하는 유형으로, 한 문항은 지문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른 예문에 적용하는 유형으로 출제된다.



★ 최신 3개년 고2 학력평가 출제 경향

학년도		출제 개념	난이도
2025	3월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탈락(자음군 단순화), 첨가('ㄴ' 첨가), 축약(거센소리되기)	✲✲✲
	6월	탈락(자음군 단순화, 'ㅎ' 탈락) *지문 세트 유형으로 출제	✲✲✲
	9월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구개음화), 탈락(자음군 단순화) *지문 세트 유형으로 출제	✲✲
	10월		
2024	3월	교체(된소리되기), 탈락(자음군 단순화)	✲
	6월	교체(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탈락(자음군 단순화), 첨가(ㄴ 첨가), 축약(거센소리되기)	✲✲✲
	9월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탈락(자음군 단순화), 첨가(ㄴ 첨가)	✲✲✲
	10월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비음화, 구개음화), 탈락(자음군 단순화)	✲✲✲
2023	3월	축약(거센소리되기), 탈락(ㅎ 탈락) *지문 세트 유형으로 출제	✲✲
	6월	교체(된소리되기, 유음화, 비음화), 탈락(ㅎ 탈락), 첨가(ㄴ 첨가), 축약(거센소리되기)	✲✲✲
	9월	출제되지 않음.	–
	11월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탈락(자음군 단순화) *지문 세트 유형으로 출제	✲✲✲

★ 2025년 출제 경향 분석

- **3월 학평**: 2025년도 3월 학력평가에는 〈보기〉에 제시된 단어에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일어난 횟수와 음운 변동 후 줄거나 늘어난 음운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 **6월 학평**: 2025년도 6월 학력평가에는 자음군 단순화와 'ㅎ' 탈락과 관련된 지문 세트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 **9월 학평**: 2025년도 9월 학력평가에는 표준 발음법과 함께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구개음화, 자음군 단순화를 묻는 문제가 지문 세트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 **10월 학평(2024)**: 〈보기〉의 단어에서 음운 변동을 통해 음운의 개수가 달라졌는지,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 현상이 무엇인지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B 국어의 음운 체계

개념 01 국어의 음운 체계

1 음운[1]: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최소 대립쌍을 통해 음운을 파악할 수 있다.

불

풀

뿔

→ 최소 대립쌍은 다른 모든 소리는 같고 단 하나의 소리 차이로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쌍이다. 예를 들어 '불, 풀, 뿔'은 첫소리 'ㅂ, ㅍ, ㅃ'이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 따라서 '불–풀', '불–뿔', '풀–뿔'은 최소 대립쌍이고, 'ㅂ, ㅍ, ㅃ'은 서로 다른 음운이다.

2 음운의 종류

1. **분절 음운**: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는 소리. '음소'라고도 한다.
2. **비분절 음운**: 말소리의 길이, 말소리의 높이나 세기처럼 분절 음운(자음, 모음)에 얹혀서 실현되는 요소. '운소'라고도 한다.

* **소리의 길이(장단)**: 말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예 눈 (雪) [눈:], 눈 (眼) [눈]

긴소리는 보통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 나타나며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은소리로 발음됨.
예 함박+눈[눈:] → 함박눈 [함방눈]

개념 02 국어의 모음 체계

1 모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로, 홀로 음절[2]을 이룰 수 있다.
한 번에 낼 수 있는 실제 소리의 단위. 하나 이상의 음운으로 구성됨.

2 단모음: 발음하는 동안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변화가 없는 모음

혀의 높낮이 \ 혀의 앞뒤 위치 / 입술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ㅟ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표준 발음법 제4항에 따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음.	ㅏ	

혀의 앞뒤 위치	전설 모음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위치하는 모음
	후설 모음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위치하는 모음
입술 모양	평순 모음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 모음
	원순 모음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모음
혀의 높낮이	고모음	발음할 때, 입이 조금 열리고 혀의 위치가 높은 모음
	중모음	발음할 때, 고모음보다 입이 더 열리고 혀의 위치가 중간인 모음
	저모음	발음할 때, 입이 크게 열리고 혀의 위치가 낮은 모음

3 이중 모음: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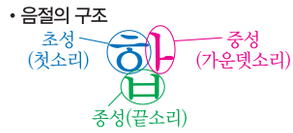
• 반모음[3]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1. ㅑ, ㅒ, ㅕ, ㅖ, ㅛ, ㅠ, ㅢ: 반모음 'ㅣ[j]'가 단모음과 결합한 이중 모음
이중 모음 중 오직 'ㅢ'만 단모음 뒤에서 반모음 'ㅣ'가 결합함.
2. ㅘ, ㅙ, ㅝ, ㅞ: 반모음 'ㅗ/ㅜ[w]'가 단모음과 결합한 이중 모음

❶ 음운과 음성
음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소리
음성: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나는 말소리. 같은 음운이라도 발음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음성의 구체적인 모습에는 차이가 있다.

❷ 음절의 구조
음절의 구조는 초성(첫소리), 중성 (가운뎃소리), 종성(끝소리)으로 나뉜다. 중성 자리에 오는 모음은 홀로 쓰일 수 있지만, 초성이나 종성 자리에 오는 자음은 홀로 쓰일 수 없다.

• 음절의 구조



▲ 모음은 중성에, 자음은 초성과 종성에 쓰인다.

중성	예 아
초성+중성	예 너
중성+종성	예 알
초성+중성+종성	예 각

❸ 반모음
•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음과 비슷하고, 홀로 발음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자음과 비슷하다.
•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을 이루어 음절에서 중성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반(半 반 반)모음'이라 부른다.
예 반모음 ㅗ[w] + 단모음 ㅐ
→ 이중 모음 ㅙ

개념 01 국어의 음운 체계

1 음운

*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01 (　　)은/는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02 '불'과 '벌'과 같이 한 가지 소리에 의해서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들의 쌍을 (　　)(이)라고 한다.

03 '공부'의 음운의 개수는 모두 (　　)개이다.

*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04 '말'과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는 (문 / 물)이다.

05 '밥'과 '법'은 (첫소리 / 가운뎃소리 / 끝소리)가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

06 (음성 / 음운)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나오는 구체적인 말소리이고, (음성 / 음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이다.

2 음운의 종류

*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하시오.

07 말소리의 길이는 분절 음운이다. (○, ×)

08 비분절 음운은 분절 음운에 얹혀서만 실현된다. (○, ×)

*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발음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쓰시오.

〈보기〉

소리의 길이는 말의 뜻을 구별해 주므로 음운의 자격을 지닌다. 예를 들어 '눈(雪)'과 '말(言)'은 각각 [눈:]과 [말:]로 길게, '눈(眼)'과 '말(馬)'은 각각 [눈]과 [말]로 짧게 발음된다.

09 두 ㉠ 눈[눈/눈:]으로 ㉡ 눈[눈/눈:] 내리는 풍경을 보니, 참 아름답다.

㉠ ..... ㉡ .....

10 동물 중에서는 ㉠ 말[말/말:]이 제일 좋다고 친구에게 ㉡ 말[말/말:]을 건넸다.

㉠ ..... ㉡ .....

개념 02 국어의 모음 체계

1 모음

*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1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를 (　　)(이)라 한다.

12 발음하는 동안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변화가 없는 모음을 (　　)(이)라 한다.

2 단모음

* 다음에 해당하는 모음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ㅏ, ㅐ, ㅓ, ㅔ, ㅗ, ㅚ, ㅜ, ㅟ, ㅡ, ㅣ

13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위치하는 모음 (　　)

14 발음할 때, 입이 조금 열리고 혀의 위치가 높은 모음 (　　)

15 발음할 때, 고모음보다 입이 더 열리고 혀의 위치가 중간인 모음 (　　)

16 발음할 때, 입이 크게 열리고 혀의 위치가 낮은 모음 (　　)

17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모음 (　　)

3 이중 모음

*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하시오.

18 반모음은 반드시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야만 발음될 수 있다. (○, ×)

19 이중 모음은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모음이다. (○, ×)

20 'ㅢ'는 단모음 'ㅡ' 뒤에서 반모음 'ㅣ'가 결합한 소리이다. (○, ×)

❖ 정답 및 해설 232p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개념 01 국어의 음운 체계

B01 ✿✿❀ 2023 실시 3월 학평 13(고1)

〈보기〉의 '학습 과제'를 바르게 수행하였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학습 자료]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특정 언어에서 어떤 소리가 음운인지 아닌지는 최소 대립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소 대립쌍이란, 다른 모든 소리는 같고 단 하나의 소리 차이로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쌍을 말한다. 예를 들어, 최소 대립쌍 '감'과 '잠'은 [ㄱ]과 [ㅈ]의 차이로 인해 의미가 구별되므로 'ㄱ'과 'ㅈ'은 서로 다른 음운이다.

[학습 과제]

앞사람이 말한 단어와 최소 대립쌍인 단어를 말해 보자.

① 꿀 ② 답 ③ 둘 ④ 말 ⑤ 풀

B02 ✿✿❀ 2019 대비 수능 11(고3)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가령 최소 대립쌍 '살'과 '쌀'은 'ㅅ'과 'ㅆ'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ㅅ', 'ㅆ'은 음운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최소 대립쌍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하면 음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쌍들을 찾아 음운들을 추출하고, 그 음운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A] 쉬리, 마루, 구실, 모래, 소리, 구슬, 머루

[B]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 입술 모양 /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ㅟ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ㅏ	

[학생의 탐구 내용]

추출된 음운들 중 [㉠]을 확인할 수 있군.

① 2개의 전설 모음 ② 2개의 중모음
③ 3개의 평순 모음 ④ 3개의 고모음
⑤ 4개의 후설 모음

개념 02 국어의 모음 체계

B03 ✿❀❀ 2015 대비 6월 모평(A) 11(고3)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한다.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ㄱ.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아, 야, 와, 의)
ㄴ. '초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끼, 노, 며, 소)
ㄷ. '중성+종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알, 억, 영, 완)
ㄹ. '초성+중성+종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각, 녹, 딸, 형)

① 초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
②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모음이다.
③ 종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자음이다.
④ 초성 또는 종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⑤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한다.

Ⅲ 화법과 언어 복합 유형

-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국어 영역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화법과 언어 개념을 함께 묻는 신유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신유형 문제는 담화의 맥락 속에서 어휘와 문법 요소를 통해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를 파악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휘 및 문법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문이나 〈보기〉에서 제시된 예문에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 문제 유형

화법과 언어 복합(신유형)

지문에서 나타난 문법 개념이 〈보기〉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이해하고, 설명을 바탕으로 선택지에서 〈보기〉 속 예문 ⓐ~ⓓ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파악해야 해요.

[Y01~03]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 후 실시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어휘뿐 아니라 문장에서도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저는 토론 수업에서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라고 말했다가,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자신감이 없어 보여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동료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 말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드러내는 표현들을 찾아보니, 제가 사용한 '-ㄹ 것 같다'와 '-아 보이다'가 모두 확신의 정도가 낮은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장을 밝히는 데에 다소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피함으로써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싶었지만, 토론에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다수와 소통하는 담화에 참여하고 있으니, 상황에 적절한 문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 해결 비법

1st 어휘와 문법 요소에 대한 개념적 이해에 더해, 어휘와 문법 요소가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데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도 파악해 두는 학습 습관을 길러야 해요.
예를 들어 보조사를 학습할 때, 보조사에 대한 개념뿐 아니라 보조사가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까지 알아두어야 해요.

2nd 어휘와 문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 속 담화 자료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해요.

Y03 ✿✿❀ 2028 대비 수능 예시 3(고3)

〈보기〉는 위 발표 후 이어진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과 관련해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발표 잘 들었어요. 발표 내용 중, 말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드러내는 표현에 대해 궁금해할 것 같네요. 확신의 정도를 드러내기 위해 동사, 부사, 의존 명사, 보조 용언, 인용절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어휘나 문법 요소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하다'라는 내용에, 앞서 언급된 표현을 더해 확신의 정도에 변화를 준 문장들입니다. 확신의 정도와 관련된 표현을 찾아 설명해 볼까요?

ⓐ 저에게는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한 듯 이해되고 있습니다.
ⓑ 저는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하다고 믿게 됐습니다.
ⓒ 저는 대체로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 분명히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한 법입니다.

학생: _____ [A] _____

① ⓐ는 ⓑ와 달리 보조 용언을 써서 확신의 정도를 드러냈어요.
② ⓐ는 ⓒ와 달리 피동 접사가 있는 동사를 써서 확신의 정도를 드러냈어요.
③ ⓐ와 ⓓ는 모두 의존 명사를 썼는데, 의존 명사가 나타내는 확신의 정도는 ⓓ가 더 높아요.
④ ⓑ와 ⓒ는 인용절을 썼다는 점은 같지만, 인용절 바로 뒤의 동사가 나타내는 확신의 정도는 ⓑ가 더 높아요.
⑤ ⓒ와 ⓓ는 모두 부사를 썼는데, 부사가 나타내는 확신의 정도는 ⓓ가 더 높아요.

Y 화법과 언어 복합

[Y01 ~ 03]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 후 실시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언어의 공공성에 대해 배운 것 기억하시나요? 발표나 토론 같은 공식적인 담화에 참여하거나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는 상황에서는 언어의 공공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황에 적절한 어휘나 문장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것은 언어의 공공성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는 화자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청자가 화자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휘나 문장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어휘는 베리 시그니피컨트합니다. (반응을 살피며) 조금 의아해하시네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느린 속도로) 어휘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표현이 더 잘 이해되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다들 후자라고 하시네요. 외국어를 불필요하게 사용하면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자에게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제가 이 자리에서 '뻥치다' 같은 비속어나 '레알' 같은 유행어를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발표에서 격식에 맞지 않는 가벼운 표현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휘뿐 아니라 문장에서도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저는 토론 수업에서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라고 말했다가,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자신감이 없어 보여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동료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 말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드러내는 표현들을 찾아보니, 제가 사용한 '-ㄹ 것 같다'와 '-아 보이다'가 모두 확신의 정도가 낮은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장을 밝히는 데에 다소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피함으로써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싶었지만, 토론에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다수와 소통하는 담화에 참여하고 있으니, 상황에 적절한 문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현의 적절성을 어휘 차원과 문장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상황에 적절한 표현은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화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발표를 들은 여러분이 표현의 적절성에 관심을 갖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화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01 ✿✿❀

2028 대비 수능 예시 1(고3)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비되는 발화를 실연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②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③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④ 같은 내용을 거듭 질문하여 청중의 답변을 끌어내고 있다.
⑤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여 발표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Y02 ✿✿❀

2028 대비 수능 예시 2(고3)

다음은 위 발표를 하기 위해 학생이 세운 계획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도입]
-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환기하고, 발표의 화제가 '표현의 적절성'임을 소개해야겠어. ①
- '표현의 적절성'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예를 중심으로 설명해야겠어. ②

[전개]
- '표현의 적절성'의 개념이 변하는 양상을 그와 관련된 예를 들어 분석해야겠어. ③
- 실제 경험을 예로 들며 '표현의 적절성'이 발표를 듣는 학생들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해야겠어. ④

[정리]
- 발표의 내용을 요약하고, 발표를 듣는 학생들에게 '표현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바라는 바를 언급해야겠어. ⑤

Y03 ✿✿❀ 2028 대비 수능 예시 3(고3)

〈보기〉는 위 발표 후 이어진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과 관련해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발표 잘 들었어요. 발표 내용 중, 말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드러내는 표현에 대해 궁금해할 것 같네요. 확신의 정도를 드러내기 위해 동사, 부사, 의존 명사, 보조 용언, 인용절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어휘나 문법 요소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하다'라는 내용에, 앞서 언급된 표현을 더해 확신의 정도에 변화를 준 문장들입니다. 확신의 정도와 관련된 표현을 찾아 설명해 볼까요?

ⓐ 저에게는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한 듯 이해되고 있습니다.
ⓑ 저는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하다고 믿게 됐습니다.
ⓒ 저는 대체로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 분명히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한 법입니다.

학생: _____ [A] _____

① ⓐ는 ⓑ와 달리 보조 용언을 써서 확신의 정도를 드러냈어요.
② ⓐ는 ⓒ와 달리 피동 접사가 있는 동사를 써서 확신의 정도를 드러냈어요.
③ ⓐ와 ⓓ는 모두 의존 명사를 썼는데, 의존 명사가 나타내는 확신의 정도는 ⓓ가 더 높아요.
④ ⓑ와 ⓒ는 인용절을 썼다는 점은 같지만, 인용절 바로 뒤의 동사가 나타내는 확신의 정도는 ⓑ가 더 높아요.
⑤ ⓒ와 ⓓ는 모두 부사를 썼는데, 부사가 나타내는 확신의 정도는 ⓓ가 더 높아요.

[Y04~06] 다음은 학생의 주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발표자 ○○○입니다. 지난 동물의 날 행사 때 참여했던 설문 조사 기억하세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기억하고 있군요. 동물 키우기 관련 설문이었죠. (㉠ 자료 제시) 여기를 보면, 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키우는 일을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우리의 무책임한 행동이 생물종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 중 하나가 바로 (천천히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사이테스'입니다.

ⓑ 사이테스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인데요, 불법 거래, 과도한 국제 거래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자료 제시)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이테스 회원국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테스는 생물종을 멸종 위기 위험 정도에 따라 부속서 1, 2, 3에 구분하여 등재하며, ⓒ 여기에 등재된 생물종을 통상 사이테스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 자료 제시) 여기를 보면, 사이테스 부속서 1, 2, 3에 등재되어 있는 종의 수와 각각이 사이테스 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이테스 부속서 1에는 호랑이, 표범 등이 등재되어 있으며 ⓓ 이들은 원칙적으로는 국제 거래가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학술 연구 목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속서 2와 3에는, 상업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나 무분별하게 거래될 경우 멸종될 위험이 높은 종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 사이테스의 제정 목적을 고려할 때, 생물종을 키우는 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생물종을 키우게 된다면 사이테스와 관련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궁금하시죠? 먼저 사이테스 누리집에서 해당 생물종이 사이테스 종인지 알아봅니다. 사이테스 종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신고한 후 키워야 하며 나중에 그 생물이 죽었을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좀 번거롭죠? 절차가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생물종 보호에 동참하는 일임을 기억해주세요. (㉣ 자료 제시) 여기 앞선 설문 결과를 다시 보면, 우리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동물이 다양한데요, 이러한 관심이 특정 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생명을 키우는 일 자체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정답 및 해설 215~217p

Y04 ✿❀❀ 2026 대비 6월 모평 35(고3)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② 발표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③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여 낯선 용어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청중의 질문을 듣고 그에 답하며 청중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⑤ 청중의 기억을 환기하여 발표 내용과 청중과의 관련성을 드러내고 있다.

Y05 ✿✿❀ 2026 대비 6월 모평 36(고3)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 1] [자료 2] [자료 3]

① [자료 1]은 학생들이 키우고 싶어 하는 동물 중 사이테스 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② [자료 1]은 사이테스 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③ [자료 2]는 사이테스 종이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④ [자료 3]은 멸종 위기 위험도에 따라 구분한 사이테스 종의 수를 보여 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⑤ [자료 3]은 사이테스 종 중 2.69%에 해당하는 종만이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Y06 화법과 언어 복합 신유형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접속 부사 '왜냐하면'을 활용하여, 앞 문장에서 드러난 발표자의 주장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② ⓑ: 보조사 '란'을 활용하여, 발표의 화제인 '사이테스'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③ ⓒ: 지시 대명사 '여기'를 활용하여, 앞 문장에서 언급한 '부속서 1, 2, 3'을 가리키고 있다.
④ ⓓ: 연결 어미 '-지만'을 활용하여, '사이테스 종'의 국제 거래를 불가하게 만드는 것이 학술 연구의 목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⑤ ⓔ: 보조 용언 구성 '-여야 한다'를 활용하여, 생물종을 기르는 일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문법 용어 + 어휘 총정리

* 모르는 어휘에는 ☑ 표시하고, 헷갈리는 어휘에는 한 번 더 ☑ 표시하세요.

ㄱ

가변어
형태가 변하는 단어

가정 [假 거짓 가 + 定 정할 정]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함.
예 나는 작년부터 올해에는 시험이 실시된다는 **가정** 하에 준비를 해 왔다.

가획의 원리
기본자에 획을 더해 센 소리를 표현하는 원리

가획자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

간접 [間 사이 간 + 接 이을 접]
중간에 매개(媒介)가 되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통하여 맺어지는 관계
예 TV 드라마 중간에 나오는 PPL은 광고의 **간접** 효과를 노린 것이다.

간접 높임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통해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

간접 발화
발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간접 인용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말하는 이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인용하는 것

감탄문
말하는 이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감탄사
놀람,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단어

개폐 [開 열 개 + 閉 닫을 폐]**하다**
열고 닫다.
예 출입구를 **개폐하다.**

개혁 [改 고칠 개 + 革 가죽 혁]**하다**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다.
예 현 정부는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교육 제도를 **개혁했다.**

객체 [客 손님 객 + 體 몸 체]
문장 내에서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

객체 높임법
서술어의 객체(목적어,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

거듭 적기
앞말의 끝소리를 뒷말의 첫소리에도 적는 표기법

거북하다
마음이 어색하고 쑥스럽거나 미안하여 편하지 않다.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보다 세고 거친 느낌을 주는 소리

거센소리되기
'ㅎ'과 예사소리가 결합해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검붉다
검은빛을 띠면서 붉다.
예 기대했던 해부학 실습 시간에 **검붉은** 피를 보고 속이 울렁거렸다.

격 조사
앞말이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게 하는 조사

겹눈
한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둘 이상의 싹
예 이 품종은 **겹눈**이 많이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겹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

경청 [傾 기울 경 + 聽 들을 청]**하다**
귀를 기울여 듣다.
예 주말인데도 늦은 시간까지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모음
발음 시 입을 조금 열어서 혀의 위치가 높은 모음

고려 [考 상고할 고 + 慮 생각할 려] **하다**
생각하고 헤아려 보다.
예 현실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다.

고유 명사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붙인 이름

곧이듣다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다.
예 우스갯소리를 **곧이듣다.**

곰곰이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
예 사람들은 나를 천방지축이라고 하지만 나도 **곰곰이**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

곳간 [庫 곳집 고 + 間 사이 간]
물건을 간직하여 두는 곳
예 **곳간** 열쇠를 너만 아는 곳에 잘 간직하도록 해라.

공권력 [公 공변될 공 + 權 권세 권 + 力 힘 력]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
예 주말마다 시위가 계속되자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였다.

공덕 [功 공 공 + 德 덕 덕]
착한 일을 하여 쌓은 업적과 어진 덕
예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 사람의 **공덕**을 이야기하였다.

공론 [公 공변될 공 + 論 논의할 론]
여럿이 의논함. 또는 그런 의논
예 한동안 머리를 맞대고 **공론**을 하였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다.

공신력 [公 공변될 공 + 信 믿을 신 + 力 힘 력]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
예 노벨상을 받으려면 우선 **공신력** 있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공양 [供 이바지할 공 + 養 기를 양]**하다**
웃어른을 모시어 정성을 들여 음식 같은 것을 보내 주다.
예 어머니는 매일같이 할아버지께 좋은 음식을 **공양하였다.**

곶 [串 땅 이름 곶]
바다 쪽으로, 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
예 바다로 길게 뻗은 **곶**은 아주 오래 전부터 포구가 되곤 하였다.

과거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

관계언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뜻을 더하는 단어

관용 [慣 버릇 관 + 用 쓸 용]
오랫동안 써서 굳어진 대로 늘 씀. 또는 그렇게 쓰는 것
예 국어에서, 고유 명사는 그 나라의 발음대로 적는다는 **관용**이 있다.

관형격 조사
앞에 오는 체언이 관형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조사

관형사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

관형사형 어미
용언의 어간에 붙어 관형사의 기능을 하게 하는 어미

관형어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

관형사절
문장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절

괴다
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아래를 받쳐 안정시키다.
예 그는 지게를 벗어 작대기로 **괴어** 놓았다.

교정 [敎 가르칠 교 + 正 바를 정]**하다**
가르쳐서 바르게 하다.
예 그는 안무를 **교정해** 주기 위해 직접 시범을 보였다.

문법 개념 찾아보기

ㄱ

가변어 98
가획의 원리 252
가획자 252
간접 높임 172
간접 명령문 170
간접 발화 202
간접 인용 186
감탄문 170
감탄사 110
객체 높임법 172
거듭 적기 (중철) 259
거센소리 (격음) 44
거센소리되기 60
격 조사 110
격식체 172
겹문장 158
고모음 42
고유 명사 98
고유어 120
과거 시제 174
관계 관형사절 162
관계 (방향) 반의어 118
관계언 110
관용어 120
관형격 조사 110
관형사 108
관형사절 162
관형어 150
교체 48
구개음화 52
구결 250
구어 담화 202
규칙 활용 102
금기어 120
기본자 252
긴 부정문 186
끊어 적기 (분철) 257

ㄴ

'ㄴ' 첨가 60
높임 표현 172
능동 표현 184
능력 부정 186

ㄷ

'ㄷ' 불규칙 102
다의어 116
단모음 42
단어 80
단일어 83
담화 202
대등적 연결 어미 158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158
대등 합성어 87
대명사 98
대용 표현 202
독립 성분 150
독립어 150
독립언 110
동격 관형사절 162
동사 100
동음이의어 116
동일 모음 탈락 58
동작상 174
동화 52
된소리 (경음) 44
된소리되기 (경음화) 50
두음 법칙 218
등급 (정도) 반의어 118
띄어쓰기 224

ㄹ

'ㄹ' 탈락 58, 102
'러' 불규칙 102
'르' 불규칙 102

ㅁ

마찰음 44
맥락 202
명령문 170
명사 98
명사절 162
명사형 어미 162
모음 42
모음 축약 60
모음 탈락 58
목적격 조사 110
목적어 146
목청소리 (후음) 44
'못' 부정문 186
문법 단위 144
문법 요소 170
문어 담화 202
문장 144
문장 부사 108
문장 부사어 148
문장 성분 144
미래 시제 174
미지칭 대명사 98

ㅂ

'ㅂ' 불규칙 102
반모음 42
반모음 첨가 60
반모음화 52
반의 관계 118
반의어 118
발화 202
발화시 174
방점 252
보격 조사 110
보어 146
보조사 110
보조 용언 100
보통 명사 98
복합어 83
본용언 100
부분 - 전체 관계 118
부사 108
부사격 조사 110
부사어 148
부사절 162
부속 성분 148
부정 부사 148
부정칭 대명사 98
부정 표현 186
분절 음운 42
불규칙 활용 102
불변어 98
비격식체 172
비분절 음운 42
비언어적 맥락 202
비음 44
비음화 50
비자립적 어근 87
비통사적 합성어 87

ㅅ

'ㅅ' 불규칙 102
사고 도구어 120
사동 접미사 184
사동 표현 184
사이시옷 60, 222, 236
사잇소리 현상 60
사회 방언 120
사회적 의미 116
상대 높임법 172
상보 반의어 118
상위어(상의어) 118
상태 부정 186
상하 관계 118
상형의 원리 252
서기체 250
서수사 98
서술격 조사 110
서술어 144
서술어의 자릿수 144
서술절 162
선어말 어미 102
설명 의문문 170
성분 부사 108
성분 부사어 148
성상 관형사 108
성상 부사 108
성상 형용사 100
센입천장소리 (경구개음) 44
수 관형사 108
수사 98
수사 의문문 170
수식언 108
순행 동화 52
시간 표현 174
시제 174
실질 형태소 (어휘 형태소) 80